

美 오레곤 州 - 사업을 위한 최적의 지역

• Ronald K. Ragen

오레곤 州는 미국 서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및 워싱턴 남부지역에 접해 있다.

한국은 오레곤의 세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오레곤은 미국 서해안에서는 한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오레곤에 위치한 포틀랜드항은 서해안에서 최대의 수출항이고 수입면에서도 최대 항구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약 2만 5천대의 현대자동차가 포틀랜드항을 거쳐 미국 서부 전역으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오레곤의 사업관계가 1990년대 극적으로 증가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그러나 상이한 문화를 지닌 두 나라의 국민들이 공동사업을 고려할 때면 불안감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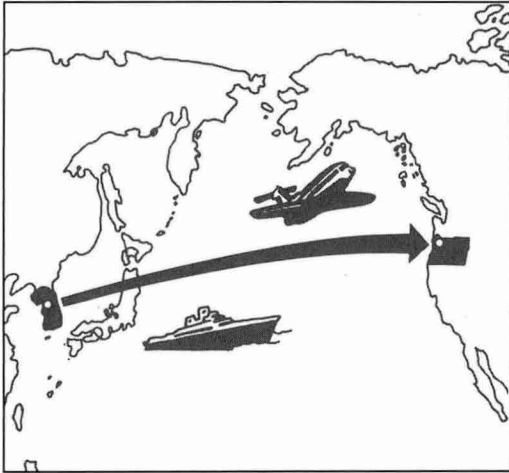
이러한 불안감들은 주로 실제적인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오레곤주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느끼는 우려사항이 주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오레곤주와의 사업관계를 고려할 때에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우려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겠는가?

한국 기업가과 미국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Ronald K. Ragen씨는 오레곤주 포틀랜드市에 위치한 Davis Wright Tremaine 법률사무소의 선임변호사이다. 전문분야는 국제관계, 법인업무 및 부동산분야이다.

Ragen 씨는 특히 태평양 지역내의 국제교역을 지원하는 Century International 회장으로 있다 (편집자 주)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오레곤에 공장을 설립한 많은 일본 업체들은 정반대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간 긴장 상태가 조성되었을 때도 오레곤은 변함없이 양호하였다.

오레곤 주민들은 일본인들이 오레곤주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레곤주 지역 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또한 일본 고용주들은 미국 근로자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성실성, 생산성 등에 만족하였다.

미국인들의 주당 작업시간이 한국인들 만큼 많다고 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오레곤 주민들은 높은 작업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긍지를 가지고 회사를 자주 옮기는 일 없이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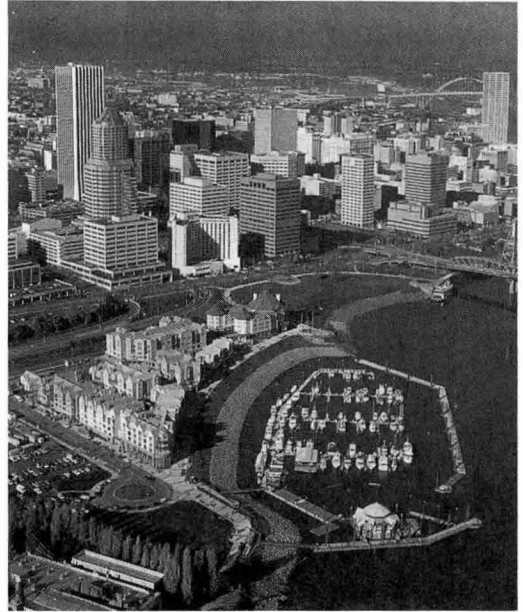
더구나 전반적으로 미국 근로자들은 높은 성취동기와 협동정신을 지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레곤주의 근로자들은 미국내 어느 근로자들보다 성취동기가 높으며 협동적이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오레곤주 내에 일본 업체의 아직률은 예상외로 낮았고, 일본 고용주들은 특별한 만족을 얻을수 있었다.

숙련 노동력은 부족하지 않겠는가?

10여년전 일본 기업들이 오레곤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유중 하나는 오레곤에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오레곤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졸업률이나 숙련 노동력 비율이 높다. 초기 일본 업체들이 경험한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일본 기업의 추가적인 유입은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



오레곤주 북부에 위치한 포틀랜드항(사진)은 수출과 수입면에서 미국 서해안에서 최대의 항구이다

때로는 1980년대, 오레곤내 일본 기업의 급속한 증가로 현장에서 일할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첫째, 오레곤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만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인구가 오레곤으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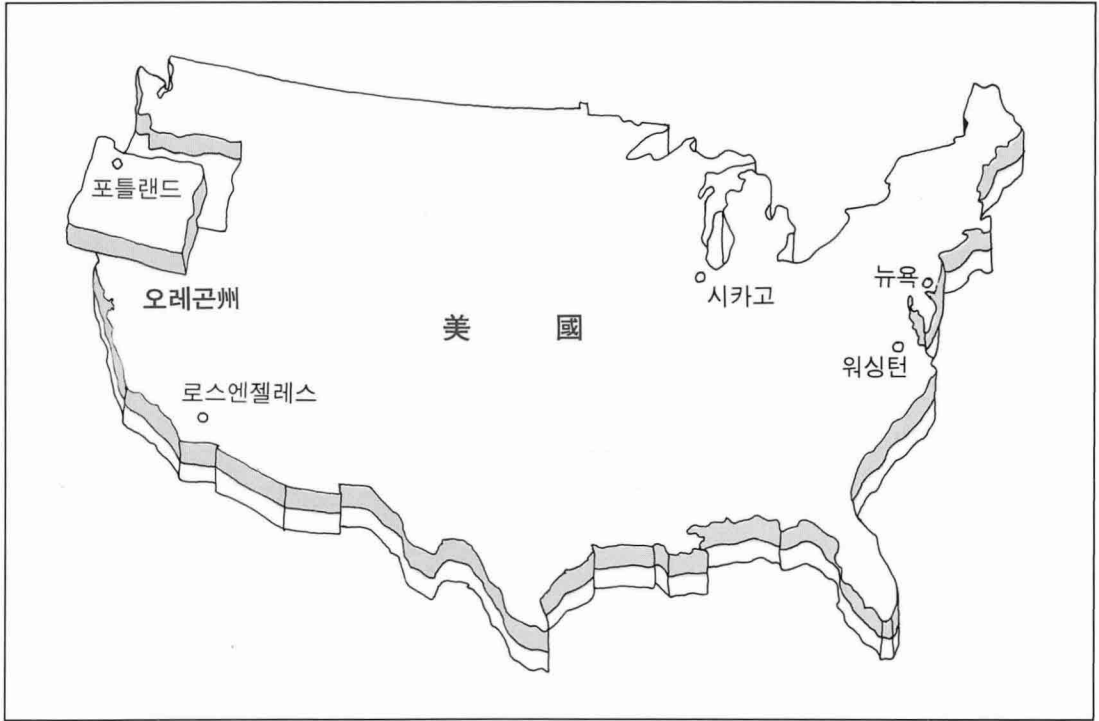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오레곤은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州들중 하나였다.

아울러 포틀랜드市와 오레곤州는 연수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오레곤 전역에 설립된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특히 독일인과 일본인 경영인들이 건설, 운영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영주들은 이러한 노력으로 산출된 결과와 노동력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다.

최근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상당수의 일본 제조업자들이 현지 설립예정인 생산시설에서 일할 수백명의 고도 숙련근로자를 모집할수



미국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 오레곤은 미국 서해안에서는 한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있을지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일본 업체들은 그 시설들이 완료될때 근로자들이 투입될수 있다는 지역당국의 보장을 받고 공장건설을 계속 추진하였다.

이후 일본 업체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백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어떤 직종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고도 숙련근로자들의 부족을 겪지 않았다.

포틀랜드시나 오레곤주는 그 지역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설에서라도 적절한 숙련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때 이 약속이 충실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도 틀림없을 것이다.

노동조합과의 어려움은 없겠는가?

오레곤은 노동조합 가입율이 높지 않다. 물론 오레곤에도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 있지만

오레곤주의 노조 역할을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노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레곤주에서는 어떤 첨단기술 업종에도 노조가 없다.

일본 업체가 오레곤주에 대규모 고도기술 시설을 설립하게 되는데는 이런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으로 오레곤주에서 주요 고용원이었던 목재산업에서는 노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레곤에서 노조와 고용주와의 관계는 공개적인 토의와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레곤은 미국의 다른 지역이나,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파업이나 노사대립과 같은 역사를 갖고있지 않다. 오레곤주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은 오레곤에서 겪을 노조문제나 노조 개입이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미약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인들의 주당 작업시간이 한국인들 만큼 많다고 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오레곤 주민들은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긍지를 가지고 회사를 자주 옮기는 일 없이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전반적으로 미국 근로자들은 높은 성취동기와 협동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오레곤주의 근로자들은 미국내 어느 근로자들보다 성취동기가 높으며 협동적이다

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후 다시파는데 어려움은 없겠는가?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아무 제약없이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다.

미국의 크기와 특정시점에서 가용한 부동산의 양으로 인하여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한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겪지 않았다.

물론 미국내에서도, 특히 외국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장가격을 부자연스럽게 상승시킨 지역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에 예외가 되는 지역이 있다.

하지만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할시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처럼 구입후 이를 전매할 때에도 아무 제약이 없다.

전매능력과 전매가격은 정상적인 시장상황에 달려있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위치, 부지에 대한 시장수요, 가능고객의 선호도, 일반적인 경제조건, 전매시점시 구매자가 대출을 받을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부동산의 구입이나 판매는 정부 당국에 의한 법적용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자유시장 여건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여러면에서 보아 미국에서의 부동산 전매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제한을 적게 받으며, 자유시장 여건이 시장성과 전매조건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미국내에서 시설부지나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가에게 오레곤은 최적의 장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레곤은 미국내에서 가장 생활하기 좋은 장소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오레곤에서 살면서 일하기를 단순히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열망하는 근로자들을 찾기가 비교적 쉬운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 10여년간 일본 업체들이 오레곤에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숙련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고용인들과 긴밀하고 단체중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뛰어난 성공을 거둔 것은 오레곤이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과 중요한 동반자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오레곤에 생산시설을 두었던 일본의 주요 업체들이 그후 4-5년내에 시설을 1배 내지 2배 확장한 것을 보면 그들이 오레곤과의 관계에서 만족하고, 오레곤이 생산성 높고 이윤이 많이 생길수 있는 시설을 두기에 훌륭한 장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오레곤에는 센트리 인터내셔널社와 같이 한국과 오레곤의 사업관계를 도와줄수 있는 많은 민간기구들이 있다.

더욱이 오레곤州와 포틀랜드市에는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지선정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용역기관들이 있다.

오레곤주와 오레곤 주민들은 태평양지역내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 역할수행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우호증진 및 사업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